



review issue > 03



이상준 (Paradise Lost)

존재하지 않는 기억의 투사

Paradise Lost\_이상준 전 6.3~7.14 갤러리 상상마당

그 노골적인 살덩이와 흐르는 핏물들을 마주하고 선 우리들은 경악해야 할 것인가 감탄해야 할 것인가. 너무 생생하게 살아서 나와 마주치고 있는 살아있는 눈알과 드러난 살덩이들은 또 어쩔 것인가, 이상준의 적나라함 앞에 서면 일단 움찔하고 멈추기 마련. 그러다 눈에 들어오는 알뜰한 알루미늄 호일과 스티로폼, 투명 테이프의 망설임 없는 등장에 우리는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다.

잃어버린 낙원에서 만난 'Beast' 들은 매머드(mammoth)처럼 존재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지만 이들의 정체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상준이 제공하는 창조물을 통해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상은 마치 경험이라는 과정을 거친 존재처럼 받아들여진다. 뿐만 아니라 (Paradise Lost) 안에서 인과관계를 통한 상황을 제공하여 다분히 실존의 생명체들로 착각하게 하는 오해의 지점에 다다르게 만든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이상준의 작품들은 작품자체 혹은 작품 간의 내러티브를 형성함과 동시에 유기적인 구조를 갖추며 작가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상준에게 있어서 물질화된 설치와 조각, 그것을 포함한 일련의 행위는 단지 완성된 하나의 예술품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상과 철학들을 풀어내기 위해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반하는 존재들인 셈이다. "나는 형상이 내포하는 '의미'로 지시된 대체사물로서의 조각이 갖는

물질적 위상에 대한 재고를 포함하여 현대문명에서 사물이 가지고 있는 형식의 정형화된 틀, 형식화된 기호의 허약성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라고 이상준은 말한다. 작가가 밝히고 있는 지점에서 보면 'Independence'는 그것에 대한 찬철한 해석과 설명적 작업으로도 보인다. 또한 평면처럼 보이는 작품들 역시 조각을 압축 혹은 응축시켜 담아 놓은 형태이며, 반대로 입체적인 구조물은 펼쳐 보이는 형식을 갖는다.

교묘하고 예리하게 붙은 살덩이, 아닌 레진 덩어리들과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붙여 나간 투명 테이프 사이사이 절묘한 손끝이 오고간다. 일정한 기초공사가 끝나 색깔을 덧씌우고, 작가가 자동기술법과 같은 직감으로 움직이는 동안 공간에 팽팽한 긴장감으로 흘렀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혼란 조각의 재료들이었다면, 그것이 단순한 묘사의 절정이었다면 이다지 쉽사리 흥분하진 않았을 것이다.

재주와 감각 사이, 개념과 이미지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이상준이다. 그리고 그의 손끝이 노출된 재료들로 하여금 한 층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존재하지 않는 기억의 투사에 우리가 능률당한다 해도 아깝한 패(快)와 이후의 꿈씌울 수 있는 사유(思惟)를 던져주고 있으니 가까이 그의 능력을 인정하는 바이다.

● 김희은영 미학·자하미술관 책임큐레이터